

사설

한·중 불교교류에 바란다

중국 정부는 양국의 교류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 지도적 위치에 있는 스님들을 공식 초청하였다. 한 중 불교교류가 우호의 차원을 넘어 "한국불교를 배워 전통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중국정부 차원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여겨진다.

중국불교는 역사상 여러 번에 걸쳐 한국불교를 수입하여 불교부흥을 도모한 바가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체관스님이 천태관편 전적들을 지금의 황주지방에 자리잡고 있었던 오월국에 전해 불교부흥에 이바지한 일이다. 고려 의종보은스님 역시 중국에 들어가 지금의 절강성 영파지방을 중심으로 교화활동을 하며, 중국전태종 제15대 조사가 되었다.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과 두 나라 모두 한자문화권에서 문화와 역사를 창달하였기에 그만큼 이질감이 없었던 것이다. 특히 중국은 동양사회의 중심국가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유행하는 문화나 사조는 이내 우리 나라에 수입되어 응용되었다. 그런 점에서 중국문화의 본류(本流)를 우리가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

하는 것도 이상할 것은 없다. 특히 21세기의 중심지역이 동북아시아가 될 것이며, 이 지역의 공통분모 중의 하나가 불교사상이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불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망각해선 안될 일이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사회주의 국가에선 종교가 언제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그들이 중국문화의 정수로 생각하는 선문화는 한문을 중심으로 하는 한족의 문화이며, 이것의 고집은 국수주의에 흐를 우려가 있다. 근대불교운동의 기수를 담당했던 구양정수가 "중국불교 폐망의 제일 원인은 선종에 있다"고 절구하면서 순수인도불교 이론을 연구하는데 평생을 바쳤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불교도 자신의 현재모습이 과연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다종교사회의 종교현실 속에서 한국불교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게을러서는 안된다. 양국의 불교계가 합심하여 21세기 새 문명을 창달하는 기수가 되길 기원한다.

주 5일 근무제와 신행생활

부처님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한 정법은 두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궁극적인 진리라는 점에서 시공을 초월해 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중생을 건지기 위한 방편설로 드러나기에 원저하게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에 상응하는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가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현실의 흐름과 경향에 맞는 방편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개인적인 차원보다도, 대중적인 포교의 장에 있어 더욱 절실하다.

이전에 본지가 실시한 '주 5일 근무 시대,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시간적 여유를 산사를 찾거나 신행활동을 하는데 쓰겠다는 불자들, 법회나 수련대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많은 것은, 경제적인 풍요를 추구하던 삶에서 보다 질 높은 삶의 추구가 임반회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불교를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요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

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을 정말로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일차고 시의성 있는 포교 방편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러한 요구가 일어날 때 제대로 그에 부응 못하고 그들의 등을 돌리게 만든다면 다음의 기회도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지금 우리 나라는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져 있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해 이미 고령화 사회를 진입했다는 것이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동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으나,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주어진 여유와 풍요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생각할 틈이 없었다. 어느 정도 목표에 가까워진 지금 그에 대한 갈증과 요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대해 불교가 참신하고 시의성 있는 포교 방편을 통해 그러한 요구에 답해야 할 때가 너무나 당연하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불교포교 방법에 불교계와 불자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동국대 불교아동학과 폐지 논란

학교측 "유아교육과 자격증 전원 취득"

재학생 "중립대서 폐과 불가 환원해야"

"불교아동학과 폐과는 어떤 이유로 안된다."

"유아교육과로 전환하면 보다는 많은 유치원교사를 배출할 수 있다."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규)가 '불교아동학과'를 '유아교육과'로 전환한 데 대해 재학생 및 동문스님들의 입장이 학교 측과 크게 엇갈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동국대가 지난 9월 중순 교육부로부터 50명 정원의 불교아동학과 대신 정원 30명의 유아교육과 인가를 받으면서부터 비롯됐다.

불교아동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 중 석립회 소속 스님들은 9일 관련 학과 교수, 학장, 부총장을 면담한 데 이어, 12일 송석규 총장을 만나 '불교아동학과 폐과에 따른 호소문'을 전달하고 강력 항의했다. 이날 스님들은 △불교아동학과로 환원 △자격증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불교유아교육학과로의 명칭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 총장은 "향후 불교유아교육학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학교 측은 유아교육학과로의 전환과 관련, 불교유아교사 양성과

졸업생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현재 30%만 취득할 수 있는 유아정교사 자격증을 100% 얻을 수 있는 사범학과로의 전환이 장기적으로 불교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며, 교과과정 등 교육체계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명칭 변경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뿐 아니라 몇 년 후에 전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스님들의 입장은 다르다. 불교유아교육 현장서 일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 불교아동학과를 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몇 년 후 불교아동학과(불교유아교육과)로 다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주

장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불교아동학과(20명)와 유아교육과(30명) 양립론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졸업생 및 재학생 스님들은 오히려 불교아동학과를 고사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문제가 더욱 심각한 사안으로 떠오른 것은 유아교육과 인가 사실을 관련학과 교수는 물론 단과대학장도 발표될 때까지 몰랐다는데 있다. 총장과 면담을 마친 스님들은 학내에서 해결방법이 없다고 판단, 16일 종립학교관단지 유아교사자격증을 위해 불교아동학과를 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몇 년 후 불교아동학과(불교유아교육과)로 다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주

한·중·일 불교대회

26~30일 中 북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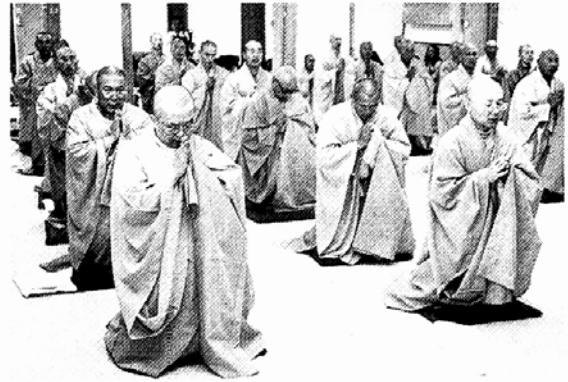
세계평화 기원·학술회 등 행사

3국 불교의 유대강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중일불교우호교류 제4차 대회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다.

한중일불교종단협의회는 26일 제4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위원회 의를 시작으로 세계평화합동기원법회와 불교환경사진전대회, 한중일 국제학술강연회도 함께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26일 북경 천봉왕조호텔에서 열린 제4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위원회에서 한국 측은 한국 불교수행체제를 위한 일본 수행단 초청과 중국불교수행체제 한 국수행단의 중국방문을 요청하는 한편, 2002년 한·일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과 일본 불교계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종근 기자 gamma@buddhaha.com 한명우 기자



관음종 스님 54명 탄생 관음종(총무원장 총파)은 9-11일 총본산 서울 묘각사에서 불기 2545년 영산게단 수계산림을 봉행, 54명의 새 출가수행자를 탄생시켰다. 개산조 태허 대종사 탄신 97주년과 관음종 창종 35주년을 맞아 봉행된 이번 수계산림 회향일인 11일에는 전계대화상 영산홍파 스님, 갈마아사리 남천축산 스님, 교수아사리 보우법륜 스님을 계사로 비구 35명, 비구니 13명, 사미 6명이 수계를 받고 부처님같은 삶을 살 것을 서원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경내지 500m 이내 '농지전용허가' 판결 운주사 "수행환경 훼손"

전통사찰인 전남 화순 운주사(주지 정행)로부터 500m 이내에 농지전용 허가 판결이 내려져 난 개발에 따른 수행환경 훼손이 우려된다.

운주사 경내지로부터 450m 지점에 식당 영업허가건과 관련, 허가를 보류해 온 화순군청은 최근 토지 소유주 이 모(화순군 도안면 용강리)씨가 광주지법 행정부에 제기한 농지전용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

다. 광주지법은 판결문에서 "해당 토지는 농지로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사유도 발견할 수 없음으로 피고(화순군청)의 이 사건 처분은 재판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며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운주사는 문화재 보호법 제74조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조항과 전통사찰

보존법 제6조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 조항에 의거 500m 이내에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보호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등이 들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행환경 침해 및 문화재 훼손 등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장은 8일 화순군청에 공문을 보내 주변상가 및 주차장 건립 등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화순군청의 항소와 함께 토지 소유주의 건축허가 신청서 문화재심의위원회의 불허처분 등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4급 승가교시 19일 송광사에서 시행

조계종 제4급 승가교시가 19일 오후 1시 송광사에서 실시된다. 또 이달 29일부터 11월1일까지 직지사에서는 제3급 승가교시산림의 교육 프로그램 및 일정도 확정됐다.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법산)는 10일 오후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제 7차 고시위원회를 열고 160여명의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4급 승가교시를 송광사에서 열기로 확정했다. 4급 승가교시에 응시한 스님들은 울화, 사집, 사

교, 화엄, 불교학개론, 치문, 조계종사, 불교사, 선학 등의 시험을 치르게 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다.

고시위원회는 또 10일 현재까지 모두 321명이 신청한 3급 승가교시와 관련해 종현 울장정신 특강·종무행정·법요의식 지도자론·설법론·포교방편론 등에 대한 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당초 시험형식의 논술을 강의 및 교육에 대한 설문형식의 평가로 대체기로 했다. 한명우 기자

특별법회·공연등 행사

조계사 91돌 맞아 17~28일

조계사가 창건 91주년을 맞아 17일부터 28일까지를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17일에는 창건 기념주간 선포와 함께 일주문 조감도를 발표하며, 19일에는 경내에서 공육진 여사 초청공연, 21일에는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한다.

또 19일부터 28일까지 오전 11시 대웅전 앞에서 일주문 불사 성취를 위한 1080배 정진을, 28일에는 중창불사 1000일 기도 특별법회를 갖는다. 한명우 기자

현대만평



너무해요...

직지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및 만등불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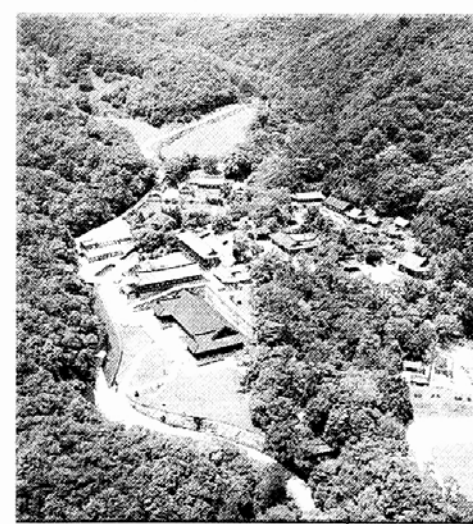
향화(香花)가 끊어지지 않는 직지사 천불기도 도량에서 보살계 수계산림법회 및 만등불사를 병행합니다.

보살계란? 대승보살이 받아지니는 제올로서 보살이 현실사회에서 구현하여야 할 실천덕목이기도 합니다.

경전에 「제는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고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으며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직지사 금강계단에서 다음과 같이 보살계 수계산림 및 만등불사를 병행하오니 불자님께서 수회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덕과 지혜를 닦아 이고득락의 열반도(涅槃道)를 이루는 법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 三和尚 · 전계 아사리 - 관음 지수 · 갈마 아사리 - 영허 녹원 · 교수 아사리 - 청운 도원



보살계 수계 대법회
■ 수계일시 불기 2545년 10월26일 (음력 9월10일) 오전 10시
■ 수계장소 직지사 금강계단(만덕전)
■ 동참금 보살계 30,000원 만등불사 10,000원
■ 접수처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번지 직지사
전화 : (054) 436-6013, 6174
팩스 : (054) 436-3174
· 온라인 : 우체국 702829-01-000143 (예금주 : 직지사)